

4/26(월) 다니엘 묵상 10

다니엘 2:40-4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왕이 꾸민 꿈에 해당하는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주의적 해석에 기초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왕의 꿈 속에 나타난 한 신상의 쇠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네번째 해석

한 신상의 쇠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에 해당하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전 제국들의 지리적 배경인 지중해는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지나 이제는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제국의 역사는 약 B.C. 8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 제국도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해서 읍, 도시, 그리고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먼저 주변 도시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B.C. 256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후 로마는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약 1세기만에 스페인의 대부분의 지역까지 포함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처럼 빠르게 하나의 단일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쉽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역사가들은 로마를 가리켜 고대의 거대한 도가니(Melting Pot) 즉, 잡다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나라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로마는 이전 제국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주적(집정관), 과두적(원로원), 민주적(의회) 요소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입헌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모든 것의 기준은 법이었고 로마가 부패하기 시작한 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로원에서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공화정의 시대가 끝나고 1세기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저에 의한 제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로마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국경에 있던 약간의 전쟁을 제외하고 정착된 로마의 평화의 시대(Pax Romana)는 약 200년간이나 지속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발전은 도로와 건축 그리고 법률 연구가 대단히 발달했고 경제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로마에서 그들이 정복한 세계 여러 나라로 길이 통하도록 이전 시대에 있던 길을 정비하고 새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는 당시 로마 권력의 위대함을 뜻하는 것으로 로마에 의해 정복당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로마제국과 신약시대

역사적으로 B.C. 63년 팰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스몬 왕조가 종말을 고하고 폼페이우스가 비두니아, 길리기아, 시리아를 차례로 차지하면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로마의 첫번째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시저(Caesar Augustus, 27 B.C. - A.D. 14)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천하에 다 호적하라"(눅 2: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는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B.C. 3-4세기경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A.D. 14년 경 시저가 죽고 두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A.D. 37년까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이우스 갈리굴라가 로마의 세번째 황제를 승계하게 되는데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때 태어났습니다. 갈리굴라는 A.D. 41년경 암살을 당하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도 그의 아내이자 갈리굴라의

여동생인 아그리피나에게 독살을 당하면서 아그리피나의 아들인 네로가 A.D. 54년에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네로는 A.D. 62년경에 로마에 불을 질러 대화재가 발생하게 했는데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이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로마의 평화의 시대(Pax Romana)에 기독교인들은 지엽적이고도 집단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제국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되다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로마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서로마도 계속된 분열을 거듭하다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금은 현대 이탈리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인 헬라 제국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묵상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약 천 년 이상의 장대한 역사를 통해 초기 기독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도로망을 통해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는 그들 자신을 '신'이라 여기는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 오랫동안 박해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속사도들을 포함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순교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히 11:36-38,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나 기독교의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교회라는 나무는 세가지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하나는 섬김(수고)의 땀이요, 하나는 기도의 눈물이요, 하나는 순교의 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무섭고도 오랜 박해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와 순수한 신앙으로 인해 제국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종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풀뿌리처럼 로마 제국에 번진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공인이 되고 국교로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록 서유럽에서 그 이후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만 중세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교리와 교회 그리고 성직자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대 제국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는 현재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반대로 기독교의 이미지는 땅바닥에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에게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으며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서유럽이 반대로 비복음화 국가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교회를 위한 기도:**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말과 행동으로 일치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로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철남 선교사님(멕시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